수도권·국립·교대 경쟁 치열… 지방 대학은 갈수록 하락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전년비해 수험생 수 ⬆ 모집규모 ⬇
일반재정지원 여부 수시모집 영향
미선정 대학 대부분 경쟁률 하락

14일 마감된 2022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선정 대학 대부분의 경쟁률이 하락하며 6대 1이하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방했다. 수도권 4개 대학은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일반대학을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 소재 주요대학 대부분의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수험생 수는 증가한 반면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립대와 교대의 경쟁률도 지난해 대비 크게 올랐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에도 인하대·성신여대 선전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은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탈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시모집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역량 진단탈락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 2022년 수시 경쟁률〉

구분	지역	대학명	2022 수시모집 경쟁률 (15일 오전 10시 30분 조사 기준)		
			모집	지원	경쟁률
일반재정 지원 탈락대학 (경쟁률 발표 23개교)	서울	추계예술대	78	1,155	14.8
	인천	인하대	2,672	38,126	14.3
	경기	수원대	1,486	20,050	13.5
	서울	성신여대	1,575	18,624	11.8
	경기	용인대	967	10,449	10.8
	경기	한세대	366	3,722	10.2
	경기	평택대	578	3,871	6.7
	경기	협성대	923	4,854	5.3
	서울	KC대	198	1,100	5.6
	서울	성공회대	455	2,105	4.6
	서울	총신대	239	989	4.1
	경남	가야대	454	1,850	4.1
	충북	극동대	876	3,392	3.9
	충북	U1대	892	3,415	3.8
	경북	김천대	672	2,565	3.8
	전남	세한대	786	2,604	3.3
	강원	가톨릭관동대	1,719	5,512	3.2
	경북	동양대	941	2,955	3.1
	전북	군산대	1,488	4,632	3.1
	강원	상지대	1,963	5,234	2.7
	충북	중원대	876	1,959	2.2
	경북	위덕대	773	1,541	2.0
	경북	대신대	93	32	0.3

*정원내외 기준, 재외국민 제외 /종로학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전국 25개 일반대학 가운데 19곳이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하락폭이 크지 않아 선방했다.

인하대의 올해 수시 경쟁률은 14.3대 1(전년 14.8:1)이며, 성신여대는 11.8대 1(전년 12.9)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원대 13.5(전년 11.4), 용인대 10.8(전년 8.3), 한세대 10.2(전년 9.6), KC대 5.6(전년 4.2) 등 수도권 4개 대학은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했다.

그러나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비수도권 소재 대학 12개 대학은 모두 경쟁률 6대 1 이하를 나타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종로학원이 각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현황을 종합한 결과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25개 일반대 가운데 23곳(한일장신대·부산장신대는 비공개)의 평균 경쟁률은 6.7대1로 집계됐다.

서울, 수도권 소재 재정지원 탈락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큰 영향 없는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모집 어려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요대 경쟁 ↑…국립대·교대도 경쟁률 반등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학의 수시 원서 경쟁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15일 유웨이가 2022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희대(서울) 27.18대 1(전년도 22.12대 1) ▲고려대(서울) 14.66대 1(전년도 9.54대 1) ▲국민대 9.47대 1(전년도 8.75대 1) ▲서강대 28.84대 1(전년도 26.08대 1) ▲서울과기대 12.22대 1(전년도 11.33대 1) ▲서울대 6.25대 1(전년도 5.63대 1) ▲성균관대 24.31대 1(전년도 21.26대 1) ▲중앙대(서울) 25.85대 1(전년도 23.81대 1) ▲한양대(서울) 25.67대 1(전년도 21.77대 1) 등 상위권 주요대 대부분이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주요 대학 수시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전년 대비 대학별 수시 모집인원은 줄고 고3 수험생 등 지원자는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수시에서 약학계열 선발이 처음 진행되면서 대부분 약대 선발 전형의 경쟁률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균관대 약학과의 논술우수전형은 66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희대 약학과(논술우수자 431.63대 1) ▲고려대(세종) 약학과(논술전형 408.9대 1) ▲동국대 약학과(논술전형 583대 1) ▲중앙대 약학부(논술전형 147.25대 1) ▲덕성여대 약학과(학생부100%전형 35.1대 1) ▲삼육대 약학과(일반전형 30.5대 1) 등을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그린스마트' 학교 개축, 철회 희망시 보류"

서울교육청 9개 학교 선정대상 제외
정밀안전진단 후 최종 철회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해당 사업을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대상으로 선정한 시내 학교 93곳 가운데 학교장 명의 공문을 통해 공식 철회를 요구한 9개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국가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만 사업비 총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전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반발이 거세다. 공사 기간에는 학생들이 '모듈러 교사'(이동식 임시 교실)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개축 시 재학생이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점도 학부모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공문을 통해 철회를 요청한 학교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적 피해를 우려해 해당 학교 이름은 비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9개 학교에 중 A~E등급으로 나뉘는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곳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해 최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등급이 D·E등급이 나올 경우 학교·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3~5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할 경우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현진 기자

1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 개소식.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단 출범

회의실, 참여기업 사무공간 등 구성

이대목동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이 정식 출범했다.

1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 개소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및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감염병 관련 창업 입주 기업을 모집했다.

이대목동병원 의학관 8층에 문을 연 개방형 실험실은 202.26㎡(약 61평) 규모로 화상회의 장비를 구축한 회의실, 오픈 세미나 공간, 참여기업 전용 사무공간, OL@E 카페 등으로 이뤄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하대 이온액체 기반 고분자 전해질 개발

김명웅·이근형 교수 공동연구팀
모션 모니터링용 소자 응용 기대

인하대학교는 대학원 화학·화학공학융합학과 김명웅·이근형 교수 공동 연구팀이 모션 모니터링 센서의 정확도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신개념 이온성 액체 기반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션 모니터링 센서는 특정 물체의 표면에 부착하여 움직임에 따른 물리적 변형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로,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핵심 요소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이 모션 센서에 적용됐으나 민감도, 신축성, 부착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 개발은 난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연구팀은 이온성 액체 기반 고체 전해질의 중요 성질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고분자를 설계해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고분자 전해질은 뛰어난 민감도뿐 아니라 특히 피부에 잘 밀착돼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움직임까지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움직임, 예를 들어 머리의 상하좌우 움직임을 다른 형태의 전기신호로 변환시킬 수 있어 최근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모션 모니터링용 소자로 응용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수시모집 경쟁률 15:1 기록

세종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9월 14일 18시 기준) 1682명 모집에 2만5903명이 지원해 평균 15.4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실기우수자전형의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전공으로, 116.60대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요 전형 중 창의인재전형은 8.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생부우수자 전형은 12.81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논술우수자 전형은 33.34대 1로 전년도(31.74대 1)보다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생물자원 분석 전문인력 육성사업 선정

전국 최다 3개팀 선정

중앙대학교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하는 '생물자원 효능 성분분석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개 팀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생물자원 효능 성분분석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가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생물자원 전문가 양성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활용 ▲생물유래 환경문제 해결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융합기술 선도 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중앙대는 이번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팀이 선정됐다. 대학원 소속 ▲생명과학과 전체옥 교수-김형민 학생 ▲식물생명공학과 이상현 교수-이학동 학생 ▲식품생명공학과 어중혁 교수-임소영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